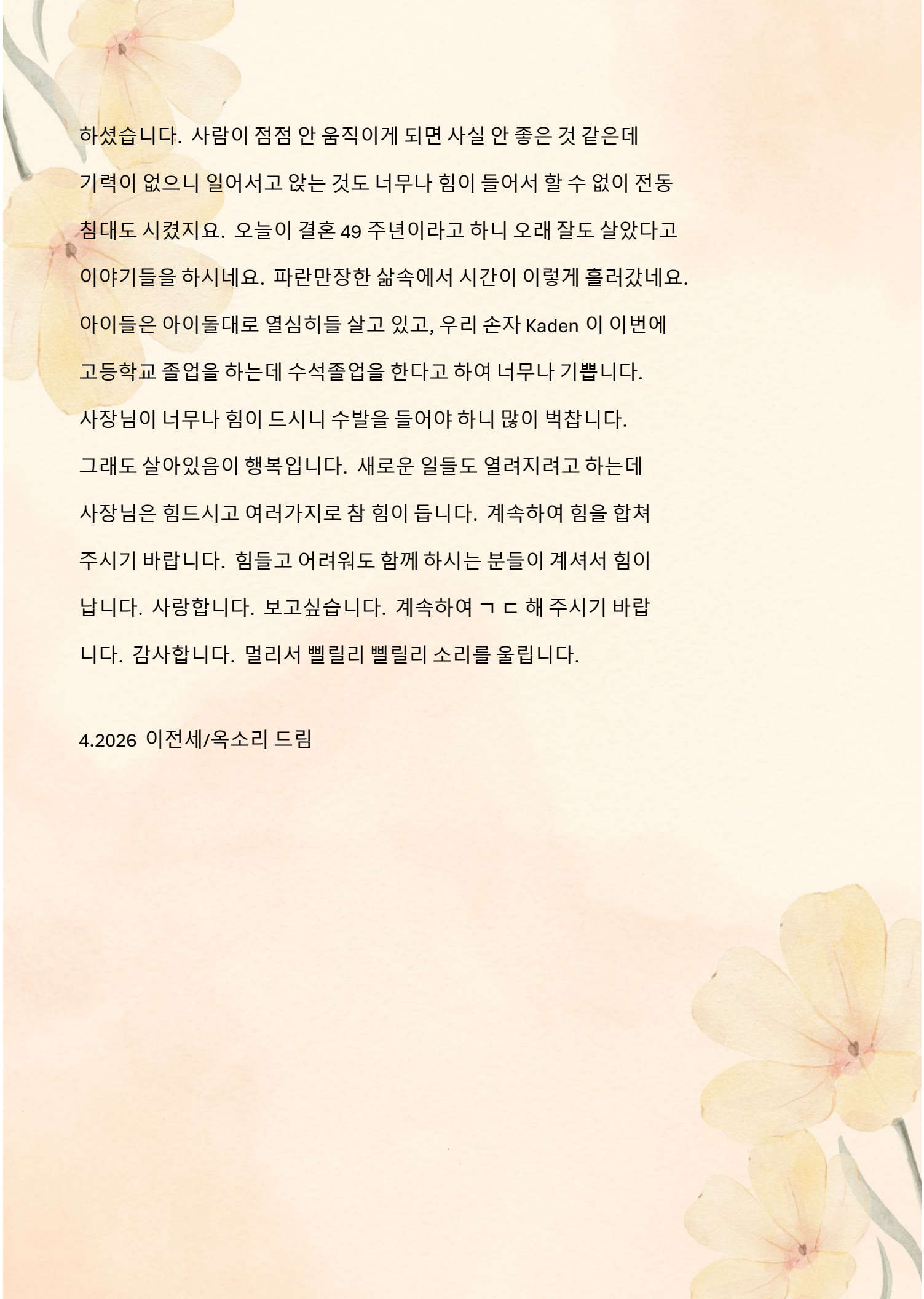


한 달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4 월도 마지막날입니다. 이번에는 죄송하게 제가 현지에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제때에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. 사장님께서서는 병원에 입원하셨고요. 현지 일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와서 마음이 찝찝합니다. 일이 쉽지가 않아서 참 힘듭니다. 여전히 모든 일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고 식품공장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제과점도 잘 하고 있습니다. 뒷쪽 소식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네요. 세계가 다 뒤숭숭하니 그쪽 소식들은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네요. 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오늘도 전동침대를 렌트하여 들여놓고 하루 종일 전동침대에서 생활을





하셨습니다. 사람이 점점 안 움직이게 되면 사실 안 좋은 것 같은데
기력이 없으니 일어서고 앉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전동
침대도 시켰지요. 오늘이 결혼 49 주년이라고 하니 오래 잘도 살았다고
이야기들을 하시네요. 파란만장한 삶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.
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고, 우리 손자 Kaden 이 이번에
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수석졸업을 한다고 하여 너무나 기쁩니다.
사장님이 너무나 힘이 드시니 수발을 들어야 하니 많이 벅잡니다.
그래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. 새로운 일들도 열려지려고 하는데
사장님은 힘드시고 여러가지로 참 힘이 듭니다. 계속하여 힘을 합쳐
주시기 바랍니다.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
납니다. 사랑합니다. 보고싶습니다. 계속하여 ㄱ ㄷ 해 주시기 바랍
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서 뽀뽀 뽀뽀 소리를 울립니다.

4.2026 이전세/옥소리 드림